

대행 스님

속지 말고 모든 걸, 한군데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제대로 되놔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남) 스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동 묘지에 묻혀져 있던 그런 많은 영령(英靈)들이 큰스님과는 어떤 인연이었기에 그런 좋은 인연이 되셨는지요.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큰스님 인연이 별다르게 따로 없는 겁니다. 바람결같이 스쳐 가는 인연. 허허허. 우리 모두가 바람결같이 스쳐 가는 인연들입니다. 이게 생시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닙니다. 생시와 꿈과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바람결같이 돌아가고 찰나찰나에 만남이 있는 것이 그대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 집을 지으려니까 인연이 된 거죠.

모두 인연이 돼서 하나로 되니까 금방 그 영령들은 백이든지 천이든지 만이든지 모두가 인간으로 환토를 한 거죠. 환토를 해서 내나와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또 내나지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여래의 집에 들었다가 여래가 죄 된 거죠. 부처가 다 됐다 이 소리죠. 이 모두가 이렇게 긴요하고 이렇게 모두 무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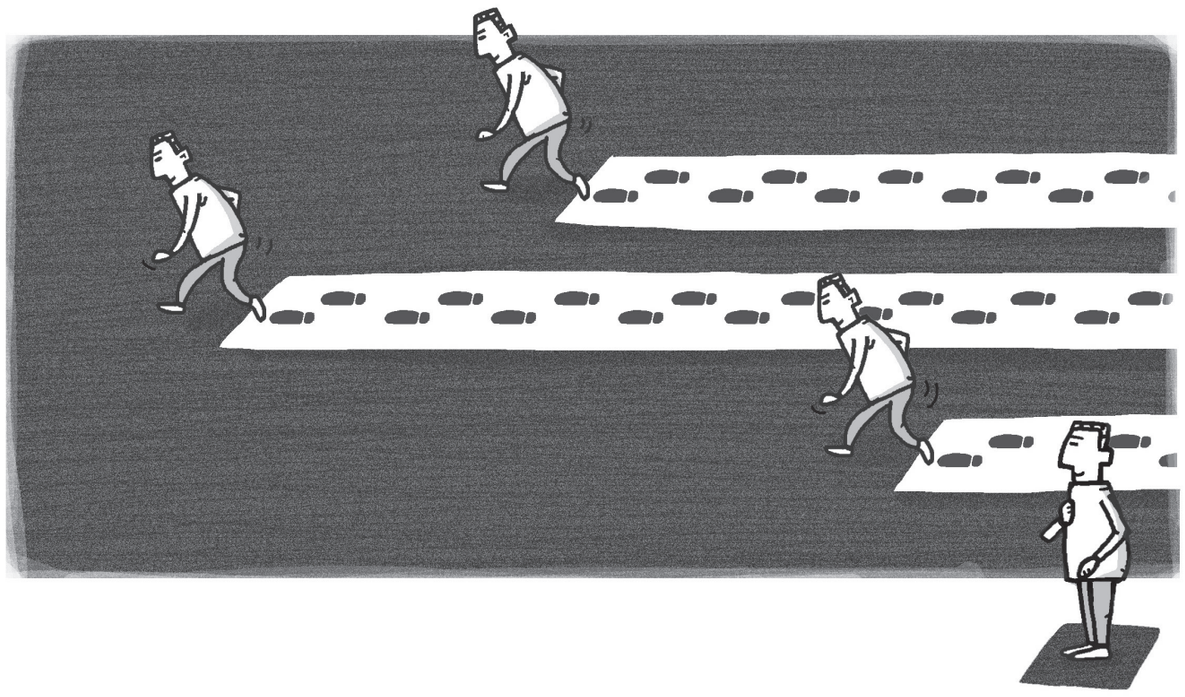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3(남)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쭙고 다시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같은 그런 논장을 보면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 그다음에 뭐, 장식(藏識)이다, 여래장(如來藏)이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팔식(八識)이라 그러죠. 그 장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 팔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 칠식이다 팔식이다 하는 그 식(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여쭙니다.

큰스님 그거를 여러 마디로 할 것 없이 아주 축소해서 말을 하죠. 칠식(七識)이다 하는 것은 우리네 육근(六根)이 공(空)해서 돌아가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칠식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가서 내 몸을 떠나서 더불어 같이 이 세상 사무 사유를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된다면 팔식(八識)입니다. 적게 따진다면 칠식이요, 넓게 전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팔식에 속합니다. 칠식이래도 하나요, 팔식이래도 하나입니다. 팔식 하면 벌써 칠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식 하면 팔(八)이라는 건 없어지고 식(識)만 남아서 그건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래장이 되는 거죠. 여래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다 송두리째 둘이 아닌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부처 자리 아닌 자체가 없고, 부처님의 작용 아닌 게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래장입니다.

질문자3(남)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없어졌다 또 찰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한 생각 일어났다가 한 생각 없어지는 그 생멸심이 곧 멸하면, 그것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마음이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참 낙(樂)'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한 그러한 마음의 자리와 끊임없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생멸심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큰스님의 말씀을….

큰스님 만날 말씀을 해 드리는데…, 하하하. 우리가 여기 걸어올 때에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이게 생멸입니다. 이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려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일어났다 또는 가라앉았다, 이게 마음이 이렇다는 것과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라앉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불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또 한번 방편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 노릇 하다가 남편 노릇 하다가 또는 형님 노릇 하다가 자식 노릇 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일어났는데 금방 딴걸로 돌아갔어요. 금방 딴걸로 돌아가고 딴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어났다 놓았다가 일어났다 놓았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여보!" 하면 "왜 그래?" 하고 일어나는 마음, 그 일어나는 마음은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악으로나 선으로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응용을 하면 선이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 악이 됩니다. 싸움을 할래도 "여보!" 할 테고, 좋은 말을 할래도 "여보!" 할 겁니다. 그런 걸 대치를 해서 잘 응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질문자3(남) 예. 그럼 그 한 생각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을 이름 붙여서 생멸심이라고 한다면 그 생멸심과 적멸심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번뇌심과 보리심이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큰스님 번뇌심이, 본래심이 번뇌심과 다르다고 그 관습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광대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계발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저 수행하는 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료!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료!

항상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 방울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주걱으로다가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쳤더라. "이건 무슨 까닭인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팥죽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게 그 속에서, 한 속에서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모든 걸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에 제대로 되놔라." 하는 소립니다, 그게.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 하고 친 게 자기 마음의 주장자로서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마다 거기다가 놨습니다. 놓으라고 그런 방편을 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에는 일어나는 그 마음. 번뇌도 망상도, 또는 도라는 이름도 없는 겁니다.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걸어오듯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걸어오듯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레공법이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해서 불이 들어와서 가정이 밝게 살고 사회가 밝게 살 수 있는 것이니 바로 한 마음에 밝게 불이 켜졌을 뿐입니다.

질문자3(남) 재료를 재료로서만 알고 재료에 결코 끄달리지 않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큰스님께서도 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물질문명이라는 이 편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금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큰스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끄달리는 의식들이 너무 힘이 세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려 하고 어떤 닥쳐오는 시련이나 아니면 죽음과 삶의 길에 도달했을 때, 그 큰 재료가 있을 때에만 그런 말씀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문명이 편리하다 보니 여기에 끄달리고 있는 저희들은, 능히 세상을

☞ 18면으로 계속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